

## 200-4-054. 공산운동 연구자료집 제1권

## ■ 1928년 구미국 제1과에서 작성한 공산운동 연구자료집 총 10집 수록

- 제1집 삿고와 반젯치 사형사건, 제2집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어서 적화선전 상황, 제3집 라고우스키사건, 제4집 고려공산당과 그 활동, 제5집 리투아니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의 폭동, 제6집 러·독 양국의 마복고반란 유발계획 에 관한 비밀서류, 제7집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공산운동, 제8집 캄차카 어장의 적화선전, 제9집 라디오 선전문제, 제10집 오화 일본노동자에 대한 적화선전 등의 사건에 대한 정보
- 제1집 삿고와 반젯치 사형사건의 개요: 1920년 미국 보스턴 남방에 위치한 소도시에서 있는 어느 제화회사 회계과 직원 2명이 어느 괴한에 의해 사살되고 15,000 달러를 강탈당했다는 살인 강도사건이다. 경찰은 무정부주의자인 伊太利人 삿고와 반젯치를 혐의자로 체포하였으나, 많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의 不公平을 공격하는 소리가 높았으나, 미국정부는 1920년 8월 11일 형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두 피고인의 구명 시위운동이 일어나, 미국 정부는 형의 집행을 8월 22일로 연기하였다. 그동안 양 피고인에 대한 구명운동에는 좌경분자와 사상적으로 아무런 특수한 경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구명운동이 실효를 보지 못한 채 8월 22일 밤 보스턴시에서 두 피고인은 전기의자에서 사라졌다.
- 제2집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적화선전 상황: 사건은 1927년 10월에 구미국 제1과가 보고한 내용이다. 국제해원구락부에서 출입하는 선박승무원에게 적색선전을 했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학무부에서는 각급학교 아동, 소년 청년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의 주입을 목적으로 조선어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신문기사의 반면은 조선어, 반면은 러시아어이며, 9월 20일부터 週刊발행을 결정하였다.
- 제3집 라고우스키 사건: 1927년 8월 8일 駐佛 露國大使 라고우스키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反幹部派의 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프랑스에 충격을 가하였다. 프랑스정부의 항의에 9월 5일 라고우스키 大使는 변명하고, 러시아정부는 정식으로 陣謝하였다. 프랑스정부는 라고우스키 大使의 소환을 非公式로 요구하였으나, 끝내는 正式로 소환을 요구하여 라고우스키 大使는 파리를 떠나고 註日大使 도부 가레후스키가 駐佛大使로 임명되었다.
- 제4집 고려공산당과 그 활동: 1926년 4월 1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공산청년회는 838개소, 회원은 4,513명, 일요일마다 赤軍將校가 출장하여 공산주의 선전교육과 군사교련 실시 등 고려공산청년회 및 소년탐험대회 조직, 간도 대성중학교와의 연락, 간도 혼춘지방에 대한 주의선전원의 파견, 야소교 선교사에 대한 포교금지, 고려 소수민족부장인 金萬謙의 조선독립운동에 관한 강연, 공산당 경영학교의 露文교과서를 諺漢文으로 改正, 고려공산당 기관지 『先鋒』 신문사 주필 李百草는 동 당 최고간부의 승인을 받아 200여 명의 기사를 先鋒社에 소집, 기관지 『先鋒』에 10월혁명 10주년 기념호 발행에 따른 기사자료 수집을 비롯하여 8가지 사항을 협의, 스탈린大學의 설립계획 등
- 제5집: 1927년 9월 10일 리투아니아共和國의 공산주의자 폭동에 관한 내용이다.
- 제6집: 露獨 雨國의 아프리카정책의 핵심인 모로코의 반란과, 프랑스와 서반아의 악전고투로 막대한 희생을 당했으나, 배후에서 독일장교와 독일해운회사가 협력, 금년 초 모로코에서 반란을 일으켜 제3인터내셔널을 책동하였다.
- 제7집 : 1927년 10월 20일 보고된 네덜란드領 東印度에서의 공산운동, 1926년 이전의 공산운동과 1926년의 공산당 폭동사건, 1927년의 공산당 활동, 공산운동과 관련된 주요



인물의 약력, 1927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중국 漢口에서 개최된 태평양 노동 회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21개항의 결의안 채택 등의 내용이 있다. 특히 제12항 결의는 네덜란드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하와이 노동계급을 원조하는 결의안 등이다.

- 제8집 : 1927년 10월 27일 보고된 캄차카 동해안 어장의 적화선전과 적화를 반대하는 일본인 어부의 인양사건, 그리고 캄차카 서해안 어장의 적화선전 자료로서 '8시간 노동을 획득하라', '소비에트 연방의 노동법의 적용을 요구하라' 등 13개 요구조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제9집 : 라디오 선전문제로서, 1927년 11월 24일에 보고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은 北海에 있어서 라디오 선전방송에 관한 동경 日日新聞의 記事와 그 진상, 삿포로 러시아영사관·대사관에 있어서 무선장치 문제, 러시아 극동지에 있어서 라디오방송 문제 등이다.
- 제10집: 1927년 12월 보고된 내용은 오화 노동자(일본, 러시아, 중국, 한인) 330여 명에 대한 선전·선동내용, 즉 일본 노동자의 현상과 역할, 일본 노동조합 운동현황, 노동조합규약 등이다.